



부산경총 보도자료

2025. 1. 20. (총8쪽)

『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』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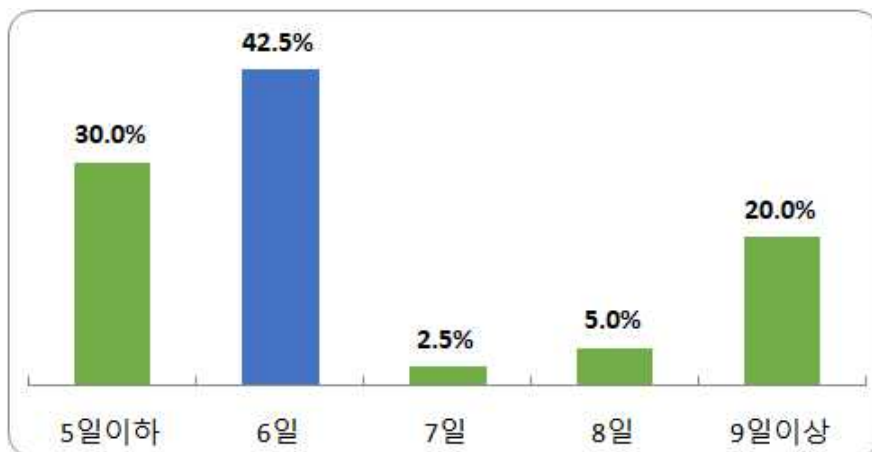
-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, '6일' 휴무
 - 68.4%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
 - 66.7% 기업, 올해 설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
- 가장 큰 실적 부담 요인은 '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'(34.2%)

■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, '6일' 휴무 '9일 이상' 휴무는 20.0%

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김광수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「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는 '6일'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(1.25), 일요일(1.26), 임시공휴일(1.27)과 설 공휴일 3일(1.28~30)이 이어지면서,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가 '6일'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'5일 이하' 30.0%, '9일 이상' 20.0% 순으로 조사되었고, 그 외 '8일' 5.0%, '7일' 2.5%로 조사되었다.

[그림 1] 2025년 설 휴무 일수 분포



'5일 이하'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'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, 납기 준수 및 매장 운영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' (58.3%)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.

일반적인 휴일인 6일을 초과해 '7일 이상'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'근로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'(37.5%), '일감이나 비용문제 보다는 단체협약,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'(29.2%) 순으로 응답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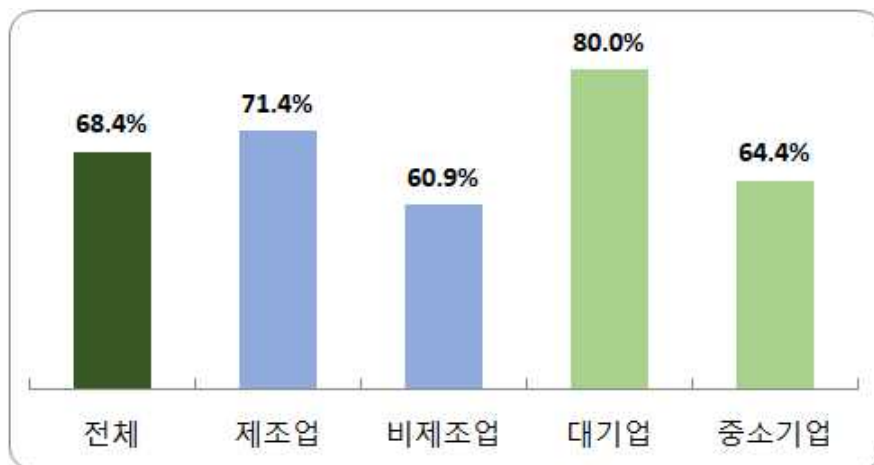
■ 68.4%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

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8.4%로 조사되었다.

업종별로는 제조업 71.4%, 비제조업 60.9%가 지급 예정으로 응답하였고,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0.0%, 중소기업 64.4%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.

설 상여금 지급방식은 '정기상여금으로 지급'(67.8%)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, '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상여금 지급'(28.6%), '정기상여금 및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'(3.6%) 순으로 조사되었다.

[그림 2] 2025년 설 상여금 지급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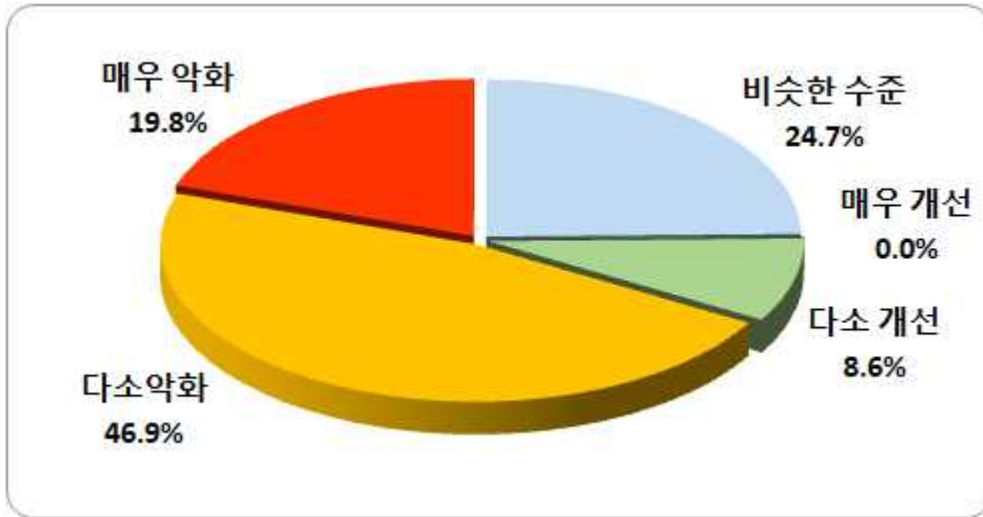
■ 66.7% 기업, 올해 설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

조사 기업의 66.7%는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전년에 비해 '악화되었다'고 응답하였다.

세부적으로는 '매우 악화' 19.8%, '다소 악화' 46.9%로 나타남. '비슷한 수준'

이라는 응답은 24.7%로 나타났으며, '다소 개선' 8.6%, '매우 개선' 0.0%로 조사되었다.

[그림 3] 2025년 설 경기 상황



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37.5%가 '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'으로 전망했고, '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'이라는 응답은 32.5%, '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'이라는 응답은 30.0%로 나타났다.

■ 가장 큰 실적 부담 요인은 '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'(34.2%)

2025년 기업의 실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'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4.2%로 가장 높았다.

그 다음으로는 '원자재 가격 상승'(27.6%), '누적된 인건비 상승'(23.7%), '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'(9.2%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※ 첨부 : 『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』 결과 (5쪽) 1부. <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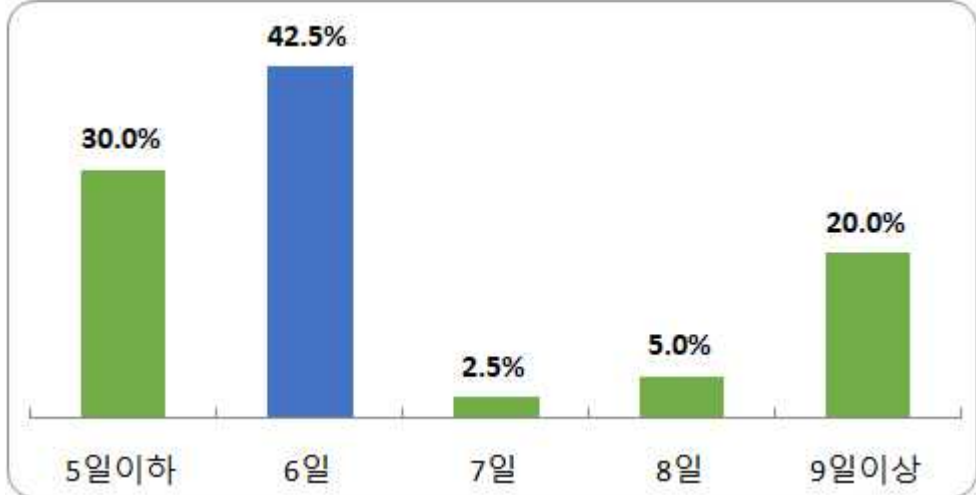
『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』 결과

1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, '6일' 휴무 '9일 이상' 휴무는 20.0%

부산경영자총협회(회장 김광수)가 부산지역 주요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「2025년 부산지역 설 휴무 실태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올해 부산지역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는 '6일'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됨.

-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(1.25), 일요일(1.26), 임시공휴일(1.27)과 설 공휴일 3일(1.28~30)이 이어지면서, 설 휴무 실시 기업의 42.5%가 '6일'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다음으로 '5일 이하' 30.0%, '9일 이상' 20.0% 순으로 조사되었고, 그 외 '8일' 5.0%, '7일' 2.5%로 조사됨.

[그림 1] 2025년 설 휴무 일수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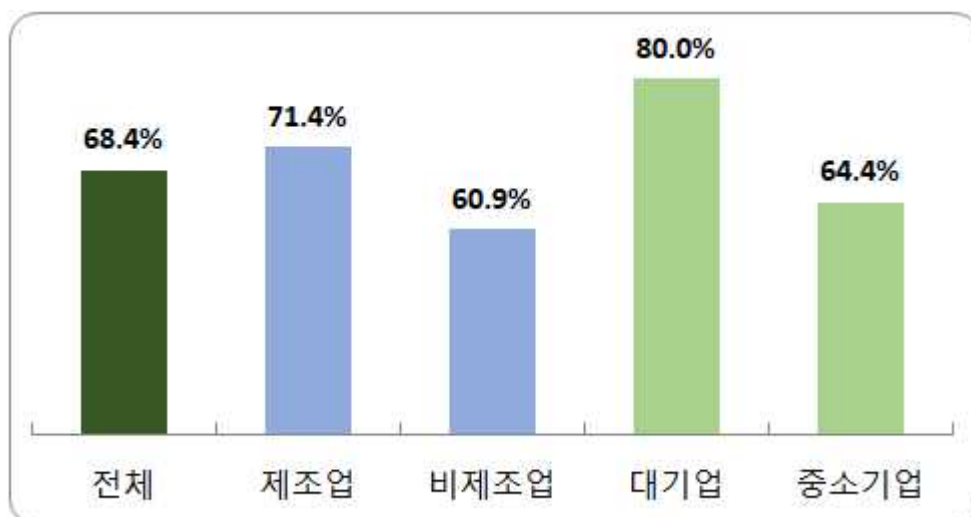
- ‘5일 이하’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‘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, 납기 준수 및 매장 운영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’ (58.3%)를 가장 많이 응답함.
- 일반적인 휴일인 6일을 초과해 ‘7일 이상’ 휴무하는 기업은 그 이유로 ‘근로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’(37.5%), ‘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,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’(29.2%) 순으로 응답함.

2 68.4%의 기업이 설 상여금 지급 계획

■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68.4%로 조사됨.

- 업종별로는 제조업 71.4%, 비제조업 60.9%가 지급 예정으로 응답하였고,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0.0%, 중소기업 64.4%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조사됨.

[그림 2] 2025년 설 상여금 지급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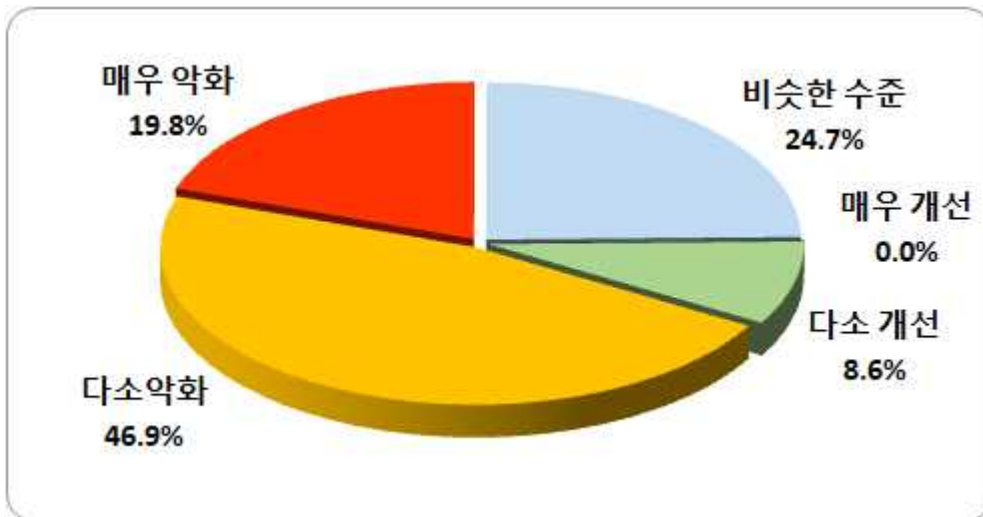


- 설 상여금 지급방식은 ‘정기상여금으로 지급’(67.8%)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, ‘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상여금 지급’(28.6%), ‘정기상여금 및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’(3.6%) 순으로 조사됨.

3 66.7% 기업, 올해 설 체감 경기 전년보다 악화

- 조사 기업의 66.7%는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전년에 비해 ‘악화되었다’고 응답.
- 세부적으로는 ‘매우 악화’ 19.8%, ‘다소 악화’ 46.9%로 나타남. ‘비슷한 수준’이라는 응답은 24.7%로 나타났으며, ‘다소 개선’ 8.6%, ‘매우 개선’ 0.0%로 조사됨.

[그림 3] 2025년 설 경기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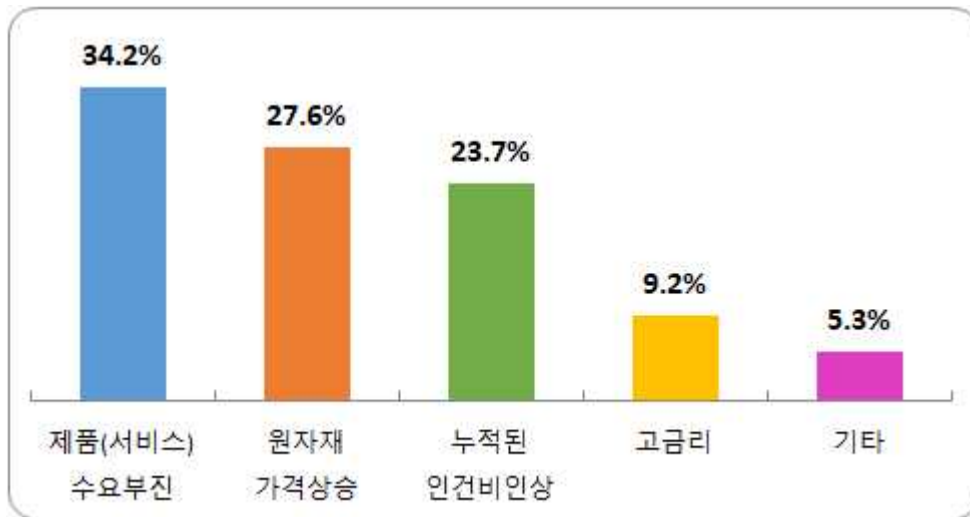


-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37.5%가 ‘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상황이 비슷할 것’으로 전망했고, ‘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32.5%, ‘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’이라는 응답은 30.0%로 나타남.

4 가장 큰 실적 부담 요인은 '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'(34.2%)

- 2025년 기업의 실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'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4.2%로 가장 높았음.
- 그 다음으로는 '원자재 가격 상승'(27.6%), '누적된 인건비 상승'(23.7%), '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'(9.2%) 등 순으로 나타남.

[그림 4] 2025년 실적 달성 부담 요인



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본 조사는 부산지역 기업의 설 휴무 계획과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개별기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조사범위 및 대상

부산지역 주요기업 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

3. 조사기간

조사기간 : 2025년 1월 9일 ~ 1월 15일

4. 조사방법

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와 전화를 통한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였다.

5. 조사내용

- (1) 설 휴무일수
- (2) 설 상여금 지급 여부
- (3) 설 상여금 지급 방식
- (4)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
- (5) 상반기, 하반기 경기상황 전망
- (6) 올해 실적 달성 부담 요인

6. 설문회수현황

(단위 : 개)

전 체		109
규모별	대기업	20
	중소기업	89
산업별	제조업	68
	비제조업	41